

부활 제2주일

제1독서 : 사도 5, 12-16

제2독서 : 묵시 1, 9-11ㄱ, 12-13

복 음 : 요한 20, 19-31

숲 정 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요한 20, 19)

강론

육신의 부활

양석현 신부/고산성당

얼마 전, 우리가 존경하는 김병엽(베드로) 신부님
께서 교통사고로 하느님 품에 안기셨다. 그런데 신
부님의 유언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당신이 죽으
면 육신은 병원에 기증하고, 훗날 화장을 시켜 산과
들에 뿌려달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신부님의 갑
작스런 죽음과 이러한 유언에 더욱 마음 아파 하였
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터 화장은 교회
가 금하는 것으로 알아왔다. 화장을 시키면 부활이
불가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느님께 그제
무슨 상관이라!

옛 교리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다시 죽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간선자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육
신과 같이 사기지은을 입어 아름다울 것이요, 악인
들의 육신은 추악하고 흉한 것이라 하였다. 즉 영혼
의 상태에 따라서 부활하리라는 것이다. 사기지은이
란 육신이 상하지 않고 빛을 내며 사무친다는 것이
다. 즉 죽음과 고통이 없는 몸으로, 해와 같이 빛나
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신속히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물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의인인 육신은 어떤 처지
에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
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토마 사도에
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신다. 그리
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하신다. 왜 예수님은 손
상된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당
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을까? 오상
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시
기 때문일까?

육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리

환경 부활

부활 제2주일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나라 경제도 하루 빨리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
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까지도 부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부분 환경오염이 뒤따른
다. 그 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날
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
더구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보니 이 문제에 더
신경 쓸 여유를 갖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보라. 경제가 침체되면 구제금융이라도 받
을 수 있다지만 환경이 망가지면 어디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별로 이주할 수도 없으니 앓은자
리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대만이라는 섬을 착취
함으로써 혜택을 누린 그곳 엘리트들이 자기 아이들
을 오염된 대만 땅에서 빼내 미국으로 보낸다’는 대
만의 한 여성 생태운동가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수밖에 없
다. 각 가정에서 IMF시대에 걸맞게, 절약도 되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물
아껴쓰기, 음식찌꺼기 만들지 않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이면지 쓰기, 합성세
제 쓰지 않기, 화장지 덜 쓰기,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하기 등 너무나 잘 아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몸에 배
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귀찮고 어려운 것들이다. ‘내
가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살아야 한다’는 이 문구는
몇 번을 되뇌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다. (덕)

숲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나훔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나훔 예언자는 기원전 610년경에 활동했다.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 당한 후이다. 그래서 예언자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과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에 자기 나라의 본토인들을 이주시키고, 또한 사마리아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이주시켜 혼혈 결혼을 강요하게 된다. 이때문에 민족의 순수성을 잃게 되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된다.

나훔 예언자의 활동 시기는 이스라엘에 많은 괴로움을 주었던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신흥 세력인 바빌로니아가 근동 지방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다. 예언자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에게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 아시리아의 패망을 예언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이제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하여 흔적도 없을 것이

다. 이 기쁨의 외침은 압박에서 해방된 한사람의 기쁨인 동시에 나훔의 강한 애국심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입장에서 참 하느님의 승리와 통치를 찬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훔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책이 멸망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멸망의 선언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모든 예언들이 재앙을 알리다가도 끝에 가서는 희망이나 구원으로 끝을 맺는데, 유독 이 예언서만은 시작과 끝이 모두 멸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 안에서 예언자가 제시하는 하느님은 원수를 응징하는 하느님이요, 의로운 이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지만 불경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하느님이다. 여기서 의인이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악인이란 친멸을 받아야 할 아시리아인이다. 결국 나훔서의 메시지는 역사 안에 자신을 계시하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쁨의 샘

너희도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서금순/복자성당

구약 성서통독 65주간의 긴 여정이 끝나, 잠시 풀밭에 앉아 신발끈을 풀고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성서공부를 시작하는데 봉사자로 일해 달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얼떨결에 대답하고 보니 그것은 엄청난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봉사자라는 책임덕분에 성서를 빠짐없이 읽다보니 그 맛을 알게되고 어렵고 힘들때는 더욱 많이 읽게 되어 점차로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신부님의 보충 강의와 함께 말씀은 우리들 가슴속에 뿌리가 되고 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말씀은 날마다 크는 나무가 되어 뿌리는 점점 땅 속 깊이 뻗어감을 느꼈습니다.

말씀 나누기 시간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고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가슴속에 뛰놀

고 생명을 살찌워 주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이 다른 자매에게는 보배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때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매들이 하나 둘 성서교실에 나오지 않을때면 나의 부족때문인 것 같고 소중한 말씀과의 만남이 멀어질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벅찬 일인지, 이 느낌을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좋은 주님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 야훼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레위 19, 2).

기독교 신학원에서 냉·온풍기를 기증해 주실 은인을 찾습니다. 성서교실 수강자 모집합니다. (0652) 75-5879

영원 인터스포츠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브레이크, 스케이트 보드, 텐트 등산복, 신발전문
 김 영 삼(미카엘)
 이 해 람(안제라)
 코아백화점 5층
 ☎ (0652) 87-7710

오 공 용 달
 이사, 자취집 운반 각종화물, 가구, 피아노 조율 및 운반
 ☎ (0652) 77-5050
 011-677-5050
 이 병 희(사도요한)
 박 애 영(데레사)

결혼상담소
좋은 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87-3325, 88-3325

제일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문 의 안 해 선
 익산시청 ↔ 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잡간

궁금해요

미사 시작부분에서 신부님 '...를 위한 연미사' 또는 '...를 위한 생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미사 중에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특별한 지향을 들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오늘은 ...를 위한 연미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례원칙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미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기, 누구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사 시작부분에 발표를 할까요? 그것은 교우들이 미사예물을 넣으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우가 '김안토니오를 위한 연미사'를 넣었다면, 그는 사제가 미사 중에 김안토니오를 위한 연미사라고 말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미사에 참석한 다른 교우들은 뭘니까? 엑스트라입니까? 아닙니다. 이 미사에서는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가 김안토니오를 특별히 더 기억한다는 뜻이지, 김안토니오 하나만을 위한 미사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오늘 미사에서 내가 지향하는 바가 따로 있긴 하지만, 다른 교우가 특별히 미사예물을 넣고 어떤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했으니까 미사 중에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도 됩니다. 자기 것은 자기 것대로 기억하면서 그날 지향에 따라서 좀더 기억하면서 기도 드린다면 좋겠지요. 미사 한 대 안에 여러 지향을 가진다고 해서 결코 주님의 은총이 적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페루 선교사 지원 2차헌금

오늘 부활 제2주일은 페루 선교사 지원을 위한 2차헌금주일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페루 차차뿌야스 교구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전주교구의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선교를 도와주시는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페루 선교를 위하여 계속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화산동 성당 화재

지난 4월 10일 성 금요일 밤 화산동 성당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조립식 건물로된 성당이 거의 형체도 없이 불타버렸습니다. 신축중인 성당 지하실에서 부활을 맞이한 신자들은 이번 화재가 새성전 건립에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놀랍고 서운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화산동 성당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성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제 단체 소식

1. 레지오 영성피정 : 4월 23일(목), 치명자산
2. 은혜의 밤 철야기도 : 4월 24일(금), 오후 11시, 전동성당
3. 레지오 마리아 지도수녀 간담회 : 4월 25일(토), 오전 9시 30분, 전동성당 교육관
4. 혼인강좌 : 4월 26일(일), 오전 9시 30분, 가톨릭센터
5.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4월 30일(목), 주제 - 믿음의 기쁨, 지도 - 신순근 신부
6. 관상기도 피정 : 4월 22일(수),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지도 - 김보록 신부

요십이 (1289) 김병오



송천 제2성전 신축 바자회

일시 : 4월 23일~26일
오전 11시~오후 9시
장소 : 송천동 성당 구내
전화 : (0652) 74-1004

한국의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 1998년 4월 26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문의전화 : (02) 3673-2525
대상 : 외방선교를 지망하는 교
교생, 대학생, 일반(미혼 남, 녀)

전주문구센터 NEO DADA

1층 약세사리, 펜시
2층 학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수관(야고보) · 심경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LG 에어컨 예약

98년 신제품 15% 할인+6개월 무이자 할부
사은품 PCS 증정
냉난방기기 상담 환영
할부 대금은 5월부터 불입
식당용 냉장고 취급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이지문구 유통 상사

에버그린 전복대리점
모 나 미
펜시, 문구, 수입필기구 전문 도매 유통
단체, 납품 및 문구점 개업상담 환영
대표 : 정 상 남(요한)
이사 : 전 현 배(다두)
군산시 월명동 명산동 사거리
☎ (0654) 468-8894, 63-5048

숲정이 익스프레스 이사짐

사다리차 · 인부대기 · 포장이사
251-2024
☎ (0652) 246-2024
223-2024
이 한 주(토마)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성택

- ◎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1. 모임 : ① 울뜨레야 - 교중미사 후
② 성심부녀회 - 22일(수) 전 10시
③ 전례부, 홍보부, 테니스회, 청년회 - 26일(주일)
 2. 페루 선교를 위한 2차헌금 : 오늘 있음.
 3. 사랑의 다리, 성소후원비 : 회비 봉헌의 날임, 임피 바람
 4. 축! 나눔잔치 : 오늘 전 11시~후 10시, 부활절 나눔잔치 있음
* 은총시장과 교환시장 음식판매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5. 가정 방문 : 22일(수)~23일(목) - 우성구역 방문
 6. 구역 미사 : 24일(금) 후 8시 - 우성구역 미사
 7. 축! 혼인 : 26일(주일) 12시 30분
신랑 - 박태학, 신부 - 김혜정(나탈리아)
 8. 구역반 모임 : 구역반 및 형제회 모임에 충실하기 바람
 9. 고백성사 : 언제나 미사 전후 20분씩 볼 수 있음
 10. 예비신자 교리 : 매주 수, 목, 주일에 있음
 11. 성서교실 :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있음
 12. 책자 홍보 : 다음 주일에 바로로 서원에서 출장 홍보 있음
 13. 특별 헌금 : 익명 5만원
 14. 금주 전례 : 해설 - 김학덕, 독서 - 박해근(스테파노) 부부
봉헌 - 은복수(요한) 가정
 15. 차주 전례 : 해설 - 김철, 독서 - 김래연(리노) 부부
봉헌 - 이봉구(요셉) 가정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무실 74-9260 주임신부 오현택
F A X 74-9260 수녀원 74-9262 사목회장 유준웅

- ◎ 금주는 가두선교 주간입니다!
예비신자 인도와 쉬는 교우 회두에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 오늘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교우금 납부일
1. 금주 모임 : ① 꾸리아 - 공식미사 후, 지하성당(교육관) ② M.에오임 - 후 8시, 교육관 2. 차주 모임 : 애령회, 방주회, 청년공동체 * 차주 - 오수 성당을 위한 2차헌금 3. 환자 봉성체 : 24일(금) 후 1시부터, 수녀님 4. 신앙서적 바뀌임기 : 5월 10일(일) * 읽고난 책 또는 책대금 접수바람 5. 사순절 저금통과 성미를 반별로 모아 봉헌바람
 7. 전입가정 환영! : ① 전양남(마리아) T. 75-2476, 2구역 2반
② 김찬수(라우렌시오) T. 251-7942, 3구역 1반(세은 에프터스쿨)
③ 권인숙(아가다) T. 74-9803, 10구역 2반
④ 박현숙(율리아) T. 251-0749, 제일A 102/202
 7. 부지헌금 2차신립 감사! : 강신양 2백만, 장동철 1백만, 누계 3백만원
 8. 축! 혼인 : ① 오늘 12시, 성당, 신랑 - 김정현의 차남 김상국(루도비코), 신부 - 이영철의 차녀 이경(젠바)
② 25일(토) 12시 30분, 성당, 신랑 - 강당형의 장남 강경희, 신부 - 이휴창의 장녀 이경주(크리스티나)
 9. 독서 : 금주(새벽) - 김진순, 이자영, 차주 - 최성복, 유인숙 (공식) - 장수택, 백영순, 차주 - 남철우, 임영순
 10. 미사 안내 : 금주 - 셋별의 모후Pr., 차주 - 인자하신 모후Pr.
 11. 주차 안내 : 금주 - 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 - 바다의 별Pr.
- 지난주 봉헌금 : 2,569,000원 □ 교우금 : 2,476,2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박기준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람이여
1. 모임 : ① 산악회 - 오늘 후 1시 30분, 내동산
② 테니스회 - 오늘 후 2시, 해성학교
③ 꾸리아, 요셉회, 사라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25일(토) 어린이미사 후 * 신청바랍니다.
 3. 1인 1단체 가입하여 소속감을 가집니다.
 4. 자녀들 신앙교육에 관심과 사랑으로!
 5. 사순절 돼지 저금통(살찌워서) : 다음주일까지 가져오세요.
 6. 금주 전례 : 해설 - 심영배, 독서 - 김수연, 엄효순
 7. 차주 전례 : 해설 - 김용선, 독서 - 하진도, 이현주
 8. 청소년 : 1, 2구역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설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호

-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람이여
1. 금주 모임 : ① 예비신자 인도를 위한 기도 시작
② 상지원 봉사 - 낮미사 후 ③ 구역반장회의 - 낮미사 후
④ 제대회, 성모회 - 낮미사 후
* 음반보급 - 대전 삼성동 성당, 대구 대봉동 성당
* 페루 선교지원을 위한 2차헌금 있음
 2. 예비신자 교리 : 21일(화) 후 8시, 22일(수) 후 8시
 3. 성가 연습 : 21일(화) 후 8시
 4. 구역 미사 : 24일(금) - 거성구역
 5. 성지 순례 : 26일(일) * 음반 보급 - 안양 명학 성당
 6. 청소년 : 25일(토) - 상지의 옥좌Pr.
 7. 폐품 정리 : 25일(토) - 자비의 모후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8. 금주 전례 : 새벽 - 곡순우, 낮 - 김영중, 저녁 - 이영숙
 9. 차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홍경의, 저녁 - 정인자
 10. 음반보급 활동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1. 성전에 심을 나무를 사무실에 접수 해 주십시오.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서정현
수녀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해근

- ◎ 오늘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 ◎ 주님 사랑의 실천은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합니다.
1. 금주 모임 : ① 울뜨레야 - 19일(일) 후 8시
② 꼬미시움 - 25일(토) 후 3시
 2. 성서교리교실 : 매주 화(전 11시~12시, 후 8시~9시)
 3. 쉬는 교우 가정방문 : 23일(목) 신일A 구역
 4. 성체회 대피점 : 22일(수) 전 10시~후 4시
주제 - 관상기도에 대하여, 강사 - 김보록 신부님
 5. 부활맞이 준비에 힘써주시는 성가대, 전례단 등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축! 영세 : 주님의 부활과 함께 탄생하신 30명의 새영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 효자 경로회 설립 : 본당 노인 어르신들의 쉼터가 수녀원 2층에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8. 축! 혼인 : 19일(일) 12시,
신랑 - 김인곤(안토니오)씨 장남 김중훈
신부 - 백영환(프란치스코)씨 장녀 백명희(세실리아)
 9. 감사 합니다. : 경로회에 돌보기(5개)를 증명해 주신 예비신자 황상수 형제님과 성지가지를 마련해 주신 권영국(요셉) 형제님 고맙습니다.
 10. 사순 돼지 저금통과 점심것 모은 성미를 사무실에 봉헌해 주십시오.
 11.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쌍용2A 구역

호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서석구
보좌신부 226-0443 수녀원 223-0715 보좌신부 김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영근

- ◎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누계 - 857,490단
- ◎ 나눔의 잔치에 협조해 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페루 선교사 지원 2차헌금 실시
1. 금주 모임 : ① 울뜨레야 - 공식미사 후
② 구역(반)장 준비모임 - 24일(금) 10시미사 후
③ 본당 M.에오임 - 24일(금) 후 8시 30분, 성당1층 (사랑방)
 2. 사순절 저금통 : 오늘까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납된 신축헌금과 식권대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차주 : 승리의 여왕Cu., 요셉회, 사목회
 5. 금주 전례 : 해설 - 이인숙, 독서 - 김영호, 강남주
봉헌 - 강신호, 임애자 부부
 6. 차주 전례 : 해설 - 이진숙, 독서 - 정병태, 김춘애
봉헌 - 임창수, 권희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506,930원 □ 교우금 : 3,324,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